

# 文化 遺蹟의 考察

김 지 윤  
(향토사 연구 위원)

## □ 王山城址

- 所在地: 押海面 古耳里 山 221
- 沿革 및 事蹟: 古耳里 前方 200m 지점의 王山(80m)에 소재하는 包谷式 山城이다.

王山城은 대체로 高麗 以前의 三韓時代 또는 後三國時代 城으로 추정되는데 다음의 자료는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궁예가 알찬(閼粲)인 종희(宗希)와 金言 등을 부장(副將)으로 삼도록 하였다. 전함(戰艦)을 수리하여 光州·珍島郡·皐夷島城을 쳐서 함락시키고 德眞浦로 나아가자 甄萱이 戰艦을 배열하였는데 木浦로부터 덕진포에 이르기까지 전함이 종횡으로 잇대고...(裔令閼粲宗希·金言等爲副 修戰艦 攻拔光州·珍島郡·皐夷島城 進次德眞浦 甄萱列傳艦 自木浦至德眞 首尾相銜 水陸縱橫...)”

라 기사되어 있는데 이는 統一新羅末期에 高麗가 王建과 後百濟의 甄萱이 羅州를

차지하기 위해 쟁패를 벌일 때 철저한 後百濟 支援 勢力이 되었던 壓海郡과 인접한 新安 諸島들이 太祖 王建에게 정복 당하는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다.

上記 기사중에 光州·珍島郡과 함께 皐夷(古耳) 島城이 함락당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皐夷島城은 곧 王山城임을 알 수 있다.

이는 王山城에 대한 傳說에서도 반증되는 바 “王建이 高麗를 건국하던 918년 이후에 축조한 城이라 전한다.

“王建의 숙부 왕망이 인사관리에 불만을 품고 거사를 꾀하다 발각, 押海島 古耳里에 城을 쌓고 軍馬를 훈련시켰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王山城은 계곡을 포용한 포용식 山城”

王建의 숙부로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망은王建이 高麗를 건국할 때 공이 많았으나 高麗 建國 후 그 공이 무시되자 불만을 품고 거사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 달아난 곳이 押海島 古耳里였고, 이 곳에서 軍馬를 훈련시키기 위해 城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왕망은 왕건의 군사에 의해 現 務安郡 望雲面 두무치 밑 ‘고시’라는 연못에서 칼을 맞아 죽었다.

王山城의 地名由來 또한 왕망의 山城이란 데서 유래하였다.

王山城에 대한 기존의 조사 기록을 살펴보면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둘레 약 270間的 石築城으로 대부분 붕괴되었고 전설에는 고려의 시조 왕건의 동생이 某 海賊 集團과 함께 이곳을 근거로하여 살았다고 전하며, 모 해적 집단은 곧王建이 즉위한 해인 918년에 이 일대 후백제군과 교전하던 能昌을 바릇한 海島의 반발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文化遺蹟總覽>에는 前記 傳說 內容과 함께“...이 성의 잔재 성터는 300m, 높이가 1.5m, 폭이 3m이다.”라고 조사 보고 되어 있다.

·遺蹟 現況: 둘레 500m 정도의 王山城은 바다에 면한 東·南쪽은 산등선을 따라 築城되었고, 西·北쪽은 王山の 山下麓 및 中腹部에 축성되어 있다.

城의 형태는 부정형으로 계곡을 포용한 包容式 山城이며, 城壁은 1m 내외의 자연석과 50×20cm 정도의 잡석을 이용 狹築法에 의해 결구축성하였다.

남아 있는 城築은 現高 1.5m, 幅 3m 정도로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다.

王山の 山勢는 저평한 구릉이 이어지다가 頂上部에 이르러 갑자기 급경사를 이룬 形국으로 전체적으로 岩山이다.

이 곳 王山에서는 務安의 內陸地域 및 屏風·梅花·馬山島는 물론 智島邑 蟬島里 등이 한눈에 조망된다.

### □ 宋孔山城址

·所在地: 押海面 宋孔里

·沿革 및 事蹟: 宋孔里 宋孔山(250m) 頂上에 있는 石築城이다.

宋孔山城은 高麗時代 以前부터 있었던 城으로 전하는데 이와 관련된 典據는 다음과 같다.

(1) 〈新增東國輿地勝覽〉 羅州牧 古蹟條

“壓海廳縣 在州南四十里(壓一作押) 本海中島

① 百濟時 爲阿次山部

② 新羅改今名爲郡

③ 高麗初來屬

④ 後屬靈光郡

⑤ 後復來屬後因倭失土 僑居于此爲縣”

(2) 〈高麗史節要〉 卷1, 太祖神聖大王 元年(918)條

“時有壓海縣賊首能昌 起海島善水戰 號曰水籟肅聚七命 與葛草島 小賊相結 候太祖至 欲害之 太祖謂 諸將曰 能昌已知我至 必與島賊 同謀爲變 賊徒雖小 苦並力合勢 遏前 絕後 勝負未可知也”

(3) 〈高麗史節要〉 卷17, 高宗 丙辰 43年(1256) 6月條

① “春正月…蒙古兵謀攻諸徒遺將軍 李廣·宋君裴 領舟師三百 南下禦之”

② “六月郎將尹椿曰…車羅大賞 將舟師七十搜 盛陳旗幟 欲攻押海…押海人置二碣於大艦待之…押海人隨處備碣 蒙古人遂罷水攻之具…”

위의 資料를 근거로하여 押海島의 歷史와 宋孔山城과의 關係를 고찰해 보면 이 시기(百濟)에 西南 海岸 및 島嶼地域에는 적지않은 수의 縣治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 地域은 당시의 重要 海上活動과 연관된 交通의 요지였던 관계로 내륙의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많은 郡縣들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체로 西南地域을 통과하는 海路를 사이에 둔 당시 諸島의 행정판도는 長山島에 居知山縣과 壓海島에 설치되었던 阿次山縣이 장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郡의 명칭이 壓海郡으로 바뀌면서 安波縣(長山島), 碣島縣(靈光 郡남면) 鹽山

(海)縣(靈光 鹽山面)을 屬縣으로 하였다.

統一新羅 末期에 가서 高麗의 王建과 後百濟의 甄萱이 羅州를 서로 차지하려고 爭패를 벌일 때, 이들 郡縣들은 철저한 後百濟 支援 勢力이 된다.

“統一新羅末 高麗의 始祖 王建과 後百濟의 甄萱이 羅州를 차지하려고 싸울 때 이 地域은 後百濟 支援 勢力이었다.”

결국 이 같은 전환기에서 敗者側 立場에 섰던 壓海郡은 인접된 지역(縣)과 함께 高麗가 한반도에 재통일한 뒤 이룩한 새로운 편제속에서 한발자욱 뒷걸음을 치게 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壓海郡이 이러한 反王建 勢力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그 거점으로서의 壓海島와 宋孔山城과의 關聯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王建과 甄萱이 羅州를 차지하기 위해 爭패할 때 철저한 後百濟 支援勢力으로 등장하였던 壓海郡의 거점으로서의 宋孔山城이 初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王建이 반도의 西南部 地域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최후의 목표는 羅州占據였으나 사실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西南海岸 및 島嶼地域 勢力의 親百濟的인 편향과 반발은 매우 거센 것이었다.

따라서 後百濟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통일된 정권을 수립한 뒤에도 이 지역에 대한 견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였고, 그 견제의 방법으로서 中央政府의 강력한 세력이 부식된 羅州·靈光을 거점으로 이들 반발세력을 통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후 西南海 諸島가 다시 關防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고 주목받게 된 것은 蒙古侵入과 함께 거론된 海島入保論에 의해서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海島入保論은 北界地方 防禦와 江島遷郡에 따라 구체화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西南沿岸 島嶼의 경우도 이 海島入保의 대상 지역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蒙古軍은 高宗 42年(1255)을 전후하여 全羅道 서해안 일원을 공략하고 있고 이듬해 정월부터는 이들의 도서지방 침탈이 본격화 되었는데 高宗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初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宋孔山城에 대한 기존의 調査記錄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 “宋孔山頂에 소형의 石壘 및 우물 1개가 있으며 口碑에는 三韓 以前부터 있었던 山城址라 전하나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조사 보고 되어 있고, 〈文化遺蹟總覽〉 또한 同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遺蹟現況:宋孔山城은 이미 훼손된 상태가 심하여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山頂에는 雜木과 수풀이 울창하여 조사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